제1110회 봉사주회

제1110회 주회가 지난 9월 22일(화) 오후 4시, 신도림테크노마트 이마트에서 그루터기배움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추석 명절맞이 마트 장보기 봉사 주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봉사에는 이두원 회장을 비롯한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원 11명과 서울무악주니어로타리위성클럽 회원 3명이 참여했으며, 그루터기배움터 지역아동센터 학생 29명과 함께 조를 이루어 장보기 활동을 진행했다.
회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마트 곳곳을 둘러보며 필요한 물품과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고르고 계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보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즐겁고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추석 명절맞이 마트 장보기 봉사는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이 매년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봉사 프로그램이다. 가정 형편상 가족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험이 쉽지 않은 학생들에게 직접 물건을 고르고 쇼핑하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봉사를 통해 회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봉사주회

제1110회 봉사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7	11	0	12.6%

- 집행부(2명) : 이두원, 고영섭
- 클럽관리위원회(1명) : 이성원
- 클멤버십위원회(1명) : 김성일
- 클로타리재단위원회(3명) : 유세현,윤수아,이주호
- 클봉사프로젝트위원회(3명) : 김성훈,이상우,한주이
- 클공공이미지위원회(1명) : 최진욱

- 게스트 (3명) : 김도영,박선정,하현열

제1111회 주회 식순

- 일 시 2026년 10월 13일(화) 12시
- 장 소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

1. 개회선언 및 타종
2. 네가지 표준 제창
3. 로타리 송 제창 (R-O-T-A-R-Y)
4. 생일축하
5. 성금동의
6. 연사소개 및 강연
   - 연사 : 정지연 독일 바렌도르프 클리닉 임상예술심리치료사
   - 연제 : 예술,치유 그리고 사회적 돌봄
7. 사찰보고
8. 공지사항
9. 폐회선언 및 타종

생일회원(10월)

1일 장진갑, 6일 오현정, 16일 이상영, 19일 김연수,
22일(음9.12) 고길석, 31일 윤세영

연사소개

정 지 연

- 연세대학교 간호학 학사
- 독일 함부르크 의과대학 대학원(MSH) 통합예술치료학 석사
- 현) 독일 바렌도르프 클리닉(Klinikum Wahrendorff) 임상예술심리치료사

공지사항

1.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창립31주년 기념주회 (제1112회 주회)**
   - 일시: 10월 27일(화) 18시30분
   - 장소: 서울클럽 2층 한라산룸
   -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2026-27년도 부터는 노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오찬주회 회비를 사전등록 받습니다. 사전등록시는 3만원 (환불 불가)이며 당일 등록시는 4만원입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전등록 계좌
     우리은행 1006-301-579055 (이두원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제834호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Vol.32 No.4

CREATE LASTING IMPACT

Rotary

週報 毋岳

THE Seoul-Muak ROTARY CLUB BULLETIN

로타리의 목적 Object Of Rotary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활동의 기초로 발전시키고 증진하는 것으로, 특히 다음을 북돋는 데 있다.

01 첫째, 사람 간의 교류를 봉사의 기회로서 넓히고 함양한다.
02 둘째, 사업과 직업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며, 로타리안 개개인의 직업을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기회로 삼는다.
03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 생활, 직업 활동 및 사회 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04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맺어진 사업 및 직업인들의 범세계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 그리고 평화를 증진한다.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Of the things we think, say or do

0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0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0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0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 스케치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

- 국제로타리 회장 올라잉카 하킴 바발롤라
- 클럽관리위원장 정재규
- 재 무 강성태
- 3650지구 총재 김진환
- 멤버십위원장 김유돈
- 총 무 고영섭
- 회 장 이두원
- 로타리재단위원장 유세현
- 부총무 유재연,서정수
- 클럽 트레이너(前 총재) 이순동,김종문
- 봉사프로젝트위원장 한용란
- 사 찰 강희주
- 차기회장 오기호
- 공공이미지위원장 문승헌
- 부사찰 이종수,박성근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창립 1995년 10월 27일 · R.I. 가입승인 1996년 1월 11일
- 창립회원 163명 · 주회 화요일 12시 서울클럽
- 클럽사무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동문회관 4층

3650지구 7지역 7지역대표 : 김범준(서울한강)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서울한강로타리클럽 | 서울장안로타리클럽 | 서울화산로타리클럽 | 서울호서로타리클럽
북서울로타리클럽 | 서울LINK로타리클럽 | 서울풍류로타리클럽 | 서울커리어로타리클럽 |
서울무악 아너스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울타리로타리위성클럽 | 서울무악 주니어로타리위성클럽

■ TEL 02.393.0987 ■ FAX 02.393.0986 ■ E-mail smrc3650@hanmail.net ■ URL http://cafe.daum.net/muakrotary

제1108회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


클럽협의회 모습


총재공식방문 기념선물 전달


AKS 재단기부 감사장 전달식



신입회원 입회식



생일축하 모습

제1108회 주회가 지난 9월 8일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에서 김진환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의 공식방문 기념주회로 개최되었다. 주회 시작 전에는 클럽협의회를 개최하여 클럽의 발전과 봉사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에는 김진환 총재를 비롯해 이순동 전 총재, 김종문 전 총재, 김범준 7지역대표, 고석호 3650지구 사무총장 등 지구 임원과 서울무악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참석했다. 주회는 이두원 회장의 개회선언 및 타종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로타리의 목적 낭독, 네가지 표준 제창, 로타리 송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로타리안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두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클럽을 방문한 김진환 총재와 지구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의 활동과 회원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봉사와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범준 7지역대표의 총재 소개에 이어 김진환 총재의 연설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에는 총재공식방문 기념 선물 전달과 클럽 목표 리본 전달식이 마련됐다. 김진환 총재는 이두원 회장에게 공식방문 기념 선물을 전달했으며, 이두원 회장은 이번 회기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의 목표를 담은 리본을 총재에게 전달하며 클럽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총재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연세대학교 와인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김범준 7지역대표와 고석호 사무총장에게도 와인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오찬 후에는 AKS(Arch Klumph Society) 재단기부 감사장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종문 전 총재는 로타리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와 나눔의 공로를 인정받아 3650지구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진환 총재는 감사장을 통해 로타리재단의 첫 기부에서 시작된 나눔의 정신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김종문 전 총재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순서는 신입회원 입회식으로 김준경 신입회원은 입회선서를 통해 로타리안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김진환 총재가 직접 신입회원 뱃지를 달아주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두원 회장은 김준경 회원에게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연세대학교 하키복과 서울무악로타리클럽 명함통을 전달하며 클럽의 따뜻한 환영을 전했다.
생일축하 순서에는 이재찬,박찬복,유세현 회원이 생일을 맞아 회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사찰보고 순서에서는 강희주 사찰이 총 54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이두원 회장의 폐회 선언 및 타종을 끝으로 제1108회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가 마무리되었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이날 총재 공식방문을 계기로 회원 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와 로타리재단 기부, 회원증강을 통해 더욱 활력 있는 클럽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이 3650지구의 희망의 등불 되어주길...


김진환 총재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이 잘되어야만 3650지구가 잘된다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현재 3650지구에서 가장 큰 로타리클럽이 서울무악로타리클럽과 서울회현로타리클럽입니다. 서울회현로타리클럽이 현재 회원 100명을 넘겼습니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도 순회원 100명을 넘는 클럽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이순동 총재님과 김종문 총재님을 배출했고, 이재찬 동문을 비롯해 한 분 한 분 모두 사회의 리더로서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을 가장 모범적인 클럽으로 생각하며 존경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후원과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필리핀·태국 등 해외 클럽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혀가겠다는 이두원 회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국제로타리인 만큼 해외와의 외연을 넓히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시하신 여러 목표들도 모두 훌륭합니다. 그대로만 잘 추진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3650지구가 전반적으로 다소 침체되어 있는 만큼, 회원을 더욱 늘리는 데 큰 클럽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달리는 천리마에게 채찍을 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로타리에 들어와 활동하는 이유가 단순히 '봉사를 한다'는 기계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되새기는 '네 가지 표준(Four-Way Test)'처럼 모든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을 추구하고, 모든 거래와 행동이 공정한가를 생각하며,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로타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특히 그늘진 곳과 어려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정신은 우리 로타리의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로타리가 121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숭고한 가치를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타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로타리의 가치에 공감해 로타리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모임의 구성원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을 늘리는 것도 단순히 숫자를 늘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봉사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로타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새로운 회원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3650지구는 1927년 우리나라에 로타리가 시작된 이후 한국 로타리를 이끌어 온 종주 지구로서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전국의 로타리클럽을 관할하고 지구대회도 서울에서 개최할 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지방의 로타리가 발전하면서 여러 지구로 나뉘었지만, 여전히 3650지구는 우리나라 로타리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멤버십과 기부, 봉사 등 여러 지표에서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종문 총재님과 차기 김선 총재님, 차차기 이대희 총재님과 함께 힘을 합쳐 3650지구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자는 뜻으로 MOU도 체결했습니다. 임기가 1년씩 단절되는 한계를 넘어 차기와 차차기 총재가 함께 연결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선 멤버십에서는 순증 5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재단 기부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로타리에 활동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일정 기간 후 다시 지구와 클럽의 봉사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클럽이 기부한 만큼 3년 뒤 다시 돌려받아 자체적인 국제봉사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명확하게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PHF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전임·차기·차차기 총재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3650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클럽 중심으로 지구를 운영하고, 각 클럽에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협력하여 로타리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워낙 모범적인 클럽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3650지구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대한민국 로타리의 종주 지구인 3650지구가 다시 한 번 훌륭한 지구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108회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7	22	4	29.9%

- 집행부(2명) : 이두원, 고영섭
- 클럽관리위원회(5명) : 강희주,권보은,김종문,김준경,박찬복
- 멤버십위원회(3명) : 김성일,이순동,주하영
- 재단위원회(4명) : 김명진,유세현,윤세영,황성원
- 봉사프로젝트위원회(5명) : 강철구,고정림,김연수,이상우,한용란
- 공공이미지위원회(3명) : 이재찬,최진욱,한윤재

- 게스트 (5명) : 김진환,김범준,고석호,윤재옥,황태희
- Make-up(4명,RI3650 9월 월례회의) : 권보은,김성일,안은숙,이상우

제1108회 총재공식방문 기념주회 성금 명단 (14명/54만원)

강희주,고영섭,권보은,김명진,김성일,김종문,박찬복,이두원,이상우,이순동,이재찬,최진욱,한윤재,황성원

제1109회 주회(친선골프대회)

제1109회 주회가 지난 9월 19일(토) 12시, 오렌지듄스 영종CC에서 로타리재단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친선골프대회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두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창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회원간 친목을 다지고 우의를 나누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친선 골프대회는 김명진 부회장, 유세현 위원장, 황성원 부위원장이 이끄는 로타리재단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협찬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회원들의 정성 어린 후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의미 있게 마련된 이번 친선 골프대회는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로타리재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시상내역
- 메달리스트 : 이주호
- 신페리오 우승 : 유세현
- 이글 : 장갑순
- 롱기스트(남) : 이재찬
- 롱기스트(여) : 고정림
- 니어리스트 : 송재은



제1109회 주회(친선골프대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87	26	0	29.9%

- 집행부(2명) : 이두원, 고영섭
- 클럽관리위원회(4명) : 박찬복,송재은,이무헌,한상민
- 멤버십위원회(6명) : 김상수,이순동,이영석,장갑순,장소영,주하영
- 로타리재단위원회(7명) : 강성태,김명진,유세현,윤수아,윤세영,이주호,황성원
- 봉사프로젝트위원회(5명) : 고정림,김지애,김진홍,이상우,한주이
- 공공이미지위원회(2명) : 이재찬,한원일

- 게스트 (1명) : 현진욱